다시 울려 퍼지는 오월의 노래

5·18 42주년 기념 상설음악회…5·18민주광장서 한 달간
김원중 개막 공연…50여팀 참여, '오월어머니' 특별 무대

전국의 뮤지션들이 5·18민중항쟁 42주년을 맞아 1980년 오월, 광주의 모습을 노래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 간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올해 다시 시민들 앞에 서는 것.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을 위한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가 1일부터 31일까지(17일·18일·28일 제외) 한 달 간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오월의 노래'는 지난 1980년 이후 전국의 음악인들이 광주에 모여 독재와 폭압에 저항하는 삶의 가치를 노래하며 자발적으로 이끌어 온 '거리음악제'의 명맥을 잇는 행사로 지난 2015년 5월 다시 시작됐다.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전국에서 초청된 50여 팀, 재즈, 포크, 아카펠라 등 다양한 장르의 400여 명의 뮤지션들이 참여한다.

싱어송라이터 박문옥과 오월정신을 이어나가는 젊은 뮤지션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 '나는 80년이후생이다'를 비롯해 우물안개구리, 프롤로그, 아이씨밴드, 뚜럼부라더스, 손병휘, 버둥 등 전국에서 모인 뮤지션들이 광주의 5월을 기억하기 위해 합류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어머니' 열다섯 명이 각자 파트너와 함께 듀엣을 이뤄 특별 공연을 선보인다.

1일 개막공연으로 제6회 오월창작가요제 은상을 수상한 밴드 '등걸'과 싱어송라이터 '김원중'의 공연으로 한 달 간의 여정의 시작을 알린 가운데, 2일 포크밴드 우물안개구리가 '광주의밤', '살아 살아 가다보니'를 선보일 예정이며 프롤로그는 '다시 합시다'와 '아시안 하이웨이'를 무대에 올린다.

3일은 전주 가족 밴드 '모자'와 가수 이형주가, 4일은 달로와와 구름비나무가 무대에 선다. 6일에는 삶과 노동, 사람을 노래하는 밴드 '국도 1호선'이 참여하고, 7일에는 3인조 어쿠스틱 밴드 '아이씨밴드'와 노래벗이 함께한다.

지난 2019년 '오월의 노래' 공연 모습. 〈오월음악 제공〉

10일에는 싱어송 라이터 '버둥'과 연영석이 15일은 제주어 지킴이 '뚜럼부라더스', 416합창단이 무대에 선다.

오월어머니들은 20일부터 27일까지 자신의 '노래짝꿍'과 함께 각자의 사연을 담은 개인곡을 차례로 들려준다. 이밖에 광주아버지합창단, 순천615합창단도 무대를 선보인다. 폐막식인 31일에는 '직녀에게', '목련이 진들'을 부른 싱어송라이터 박문옥과 '나는 80년 이후생이다'의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오월의 노래'는 매년 열리는 다양한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의 출발을 알리는 음악회로, 광주 시민들 뿐만 아니라 광주를 찾는 타 지역 방문객들에게 5월 정신을 전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매김되고 있으며 올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오월의 노래' 채널을 통해 매일 저녁 생중계 될 예정이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오월의 노래 공식 페이지(www.facebook.com/maymusicbuski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82-0518.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두 전사의 만남'

국립나주박물관·연구소, 3일~7월 3일 기획 특별전
고흥 야막·신안 배널리 고분 출토 갑주 복원품 전시

고흥 야막 고분과 신안 배널리 고분에서 출토된 갑주(甲冑·투구와 갑옷을 일컫는 말)의 복원과정과 갑주 복원품 등을 공개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사진〉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은석)는 기획특별전 '두 전사의 만남'을 오는 3일부터 7월 3일까지 나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바닷가에서 만난 전사'는 고흥 야막 고분과 신안 배널리 고분에서 출토된 갑주를 중심으로 함께 출토된 무기류, 거울, 옥 등을 전시한다. 발굴조사 성과를 세세하게 설명해 관람객이 문화유산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부 '학자와 장인의 만남'은 나주문화재연구소가 원형 복원한 고흥 야막 고분 출토 갑주와 나주박물관이 원형 복원한 신안 배널리 고분 출토 갑주의 연구성과와 복원과정을 소개한다. 전시에서는 두 갑주의 기존 고고학적 조사 연구성과와 복원과정에서의 보존과학적 조사 성과를 시각 자료와 함께 보여주며 복원을 위해 사용됐던 종이갑옷, 알루미늄 갑옷, 갑옷 틀 등도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

3부 '만남: 마주한 두 전사'에서는 원형을 복원해 재현한 두 갑주를 볼 수 있다. 이 외에 발굴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비롯해 전시 이해를 돕는 영상들도 마련돼 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해 활동지를 통해 관람객들이 갑주의 모습을 꾸밀 수 있는 현장체험도 준비했으며 온라인에서는 '두 전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가족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신청은 나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삶과 죽음 사이 기나긴 여정

의사 시인 한경훈 첫 시집 '귀린' 펴내

시보다 더 시적인 '시인의 말'을 접할 때면 시인이 추구하는 세계에 호기심이 인다. 혹은 시인이 시 외에 밥벌이를 삼고 있는 '사회적 존재'는 무엇인지 가늠하게 된다. 시와 작품은 별개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경훈의 시는 '시인의 말'에서 시적 지향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다. 삶과 죽음 사이의 기나긴 여정을 하나의 여행으로 묘사하는 걸 보면, 시인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게 된다.

"타지에서 몸을 씻는 내 여객의 쓸쓸함은 물방울 같은 그런 것일까. 샤워 거울과 십이월의 공기, 새벽의 기시감이 체취처럼 서 있다. 이유 없이 누구나, 언제인가 와 보았을 여기 여관에 시간이 흐른다. 퍼런 인광이 흩어진다. 아, 가여운 우리 유령들이여."

의사 시인 한경훈이 첫 시집 '귀린(鬼燐)'(현대시학)을 펴냈다.

모두 60여 편의 작품이 담긴 시집은 신화적이면서도 초월적이며 한편으론 현실적이다. 오랫동안 갈고 다듬은 언어들은 술술 읽히면서도 묘한 깊이를 선사한다. 화자가 이편을 향해 말을 걸어오는 듯한 어조가 친근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다.

채종국 시인이 "그의 시는 고통, 죽음 같은 한계 상황을 연약한 존재의 체험적 진술로 드러내 보인다"고 표현한 것에서 보듯 시인은 의사로서의 체험을 예리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시적 상황으로 그려낸다.

표제시 '귀린(鬼燐)'은 도깨비불을 말한다. 다소 몽환적인 이미지의 시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현실을 반추한다. 다음의 시 '눈 있는데 볼 수 없네'에서 환기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귀린'의 이미지다.

"희미한 새벽이 찾아오면 나의 빨간 집으로 안개처럼 흘러 들어가, 익숙한 오른손이 기척을 찾아 그의 왼손을 잡을 때, 그의 자유로운 오른손 칼이 내 먼 생을 끌어와, 푸르스름한 나를 조각하곤 하였다."('눈 있는데 볼 수 없네' 중에서)

다소 신비로운 느낌과 환상적 이미지는 화자가 현실과 의식의 어느 지점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훈 평론가는 "언제라도 우리의 생활세계로 끼어들면서 공존하는 푸른빛의 존재다. 시인은 그것을 잡아 끌어와 혹은 그것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세계가 안겨준 피곤함과 고통의 속내를 가늠했을지도 모른다"고 평한다.

한편 나주 출신 한경훈 시인은 2020년 '작가'로 등단했으며 한국의사시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5월호

'위로하는 그림책, 같이 읽어요'
518번 버스타고 역사교훈여행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지 작가가 최근 '볼로냐 라가치상'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한국 그림책의 작품성과 예술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다.

어린 아이들이 읽는 것으로만 느껴졌던 그림책을 읽는 어른들이 늘고 있다. 그림책을 통해 얻는 위로가 크기 때문이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5월호가 준비한 특집은 '위로하는 그림책, 같이 읽어요'다. 예지책방이 운영하는 그림책 읽는 모임 '파자마 입고 그림책 한 잔', 광주 '이야기꽃도서관'과 순천 '그림책도서관' 등 광주·전남 그림책 공간을 찾아가본다.

다시 찾아온 광주의 오월.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만난 예향 초대석의 주인공은 '님을 위한 행진곡' 김종률 작곡가다.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은 생동하는 노래의 힘을 보여준다. 40년 전 탄생한 한 곡의 노래는 한국을 넘어 홍콩과 중국, 대만, 미얀마 등지에서 애창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문화재단 대표를 맡고 있는 작곡가를 만나 창작 과정과 문화예술 경영에 대해 들었다.

'광주 한 바퀴'의 테마는 5·18 역사교훈 여행이다. 민주도시 광주에는 '518번' 버스가 있다. 80년 5월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리며 싸우던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다.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518번' 시내버스에 몸을 싣고 5·18 역사 교훈 여행을 떠나본다. 5월에 둘러볼 광주 한 바퀴의 경유지는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국립5·18민주묘지, 5·18자유공원, 5·18기념문화관·기념공원이다.

광주 미디어아트의 플랫폼 'GMAP' 현장을 찾아간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GMAP(Gwangju Media Art Platform)이 2년간의 공정을 마치고 최근 광주천 인근에 공식 개관했다. 지난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이후 8년 만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의 분관형태로 운영될 GMAP을 찾아 개관 기념전으로 기획한 '디지털 공명:예술경험의 진화'와 텔레포트 라운지, 미디어 라운지 등 시민과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소통하는 공간들을 둘러봤다.

'남도 오디세이 美路味路'는 생태·인문도시 담양으로 향한다. '천년 담양, 생태와 인문학으로 디자인하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미래 천년을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는 담양. '대숲 맑은 생태도시'와 '문화관광 도시'로 탈바꿈한 담양의 오월은 푸르름 자체다. '치유의 숲' 관방제림, 초록의 향연 죽녹원, 수변 둘레길을 따라 걷는 담양호 용마루길을 걸어보고 담양이 자랑하는 로컬브랜드 '참사랑 맛김'과 죽향도가의 '대대포 막걸리'도 맛보고 왔다.

해외문화기행은 '모차르트와 사운드 오브 뮤직' 세계적 음악축제의 도시로 알려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안내하고 '클릭, 문화현장'은 '아시아 도자문화의 실크로드' 거점으로 도약을 꿈꾸는 국립광주박물관을 찾아간다.

이외에 올해 과천과 경주에서 풀과 나무, 새와 곤충이 공존하는 생태정원을 잇따라 선보이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정원디자이너 황지해와 환상적인 왼발 프리킥으로 다시 한 번 광주 승격쇼의 주인공을 꿈꾸는 광주FC 이으뜸 선수와의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곰스크로 가는 기차' 무대에

극단'청자' 3일 강진 아트홀…클래식·재즈·무용 융합

강진군 지역 극단 '청자'(대표 임재필)가 오는 3일 오후 2시와 6시 30분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레파토리 첫 공연을 시작한다.〈사진〉

이번에 선보이는 공연은 '곰스크로 가는 기차'(원작 프리츠 오르트만)로 미지의 이상향 곰스크로 길을 떠나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번 작품은 문학적으로 깊은 연극을 중심 소재로 하며 클래식과 재즈가 융합된 '클래쯔 음악밴드'의 라이브 연주와 다양한 형식의 현대무용이 더해지는 장르 융합 공연예술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강진군 병영면 지로마을과 강진읍 동문마을 지역 주민들이 즉흥적으로 무대 참여하는 연출이 돋보인다.

강진은 물론 전남과 광주출신 출연진과 스태프 3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작품은 강진 출신 청년예술인 고아람 작곡가와 작천면 출신 여주인공 조유진 배우가 참여한다. 또 강진고 이채민 학생과 성요셉상호문화고 임자인, 강진 계산초 함다율 학생 등 지역 청소년들도 함께한다. 문의 061-430-3343.

/김민석 기자 mskim@